화합으로 이타장엄행을

신뇨엔(眞如苑)
교무장 西川 勢二



불기 2568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우리 모두 화합하여 '인류·지구·우주'를 구하는 자비의 실천에 노력하며, 부처님 탄신을 축하하는 '자비의 등불'을 밝힙시다.

신뇨엔에서는 재해나 전쟁의 고통 속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안온과 지역의 안녕, 그리고 희생자분들의 회향과 추복을 위해 모든 교원이 밤낮으로 지심의 기념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타행에 매진하는 길은 부처님과 함께 정진하며 걸어가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끝없는 이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세계 속의 고통과 슬픔을 멸하는 인류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면서...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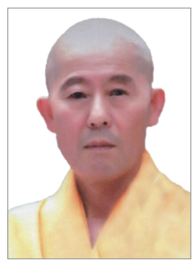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승정 목탁 스님



화목과 평등, 포용과 자비심이 담긴 사랑이 존재했을 때 이 땅에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행복한 세상, 평화로운 세상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화합과 평등 그리고 자비의 정신으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상호협력과 지원, 교류를 통한 존엄과 신뢰와 믿음이 함께 할 때 가능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생동감 있고 살아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오로지 불교 지도자 한분 한분이 화광동진하여 현세의 10대 제자, 보살마하살이 되시고 성자가 되시고 아라한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인류를 위해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만들어 온 불교계 큰스님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부처님 세상 이루는 주역 됩시다.

원융화합 자비심 나투네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종정협의회 의장 월인 스님



오늘은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명을 밝히신 날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우리 불자들은 자비와 지혜의 가피를 받아 탐욕심을 버리고 마음의 등불을 밝혀야 합니다.

너와 내가 따로가 아니고 부처님과 내가 따로가 아닌 하나의 원융화합된 자비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가까운 사찰에 가셔서 정성껏 빈자일등의 마음으로 등을 달고, 이와 함께 어려운 이웃도 생각해봅시다.

다시 한번 부처님오신날을 봉축드리며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세계불교교황청
대승통 능인 스님



도솔천에서 중생계를 내려다 보시고 어리석은 중생을 구제하고자 이 사바세계를 내려오셨습니다. 부처님은 어리석은 이들에게 지혜의 등불로 밝혀 무명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탐욕이 많은 이들에게는 보시의 등불로 밝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성내고 화를 내는 이들에게는 자비의 등불로 밝혀 덕성을 주셨습니다.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청정한 부처님의 공덕을 얻는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면 온 법계가 청정해진다고 하였습니다. 온 도량에 연등을 달아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바로 등불입니다. 힘든 세상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석가탄신일을 맞이하여 법계를 밝히는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

동사의 정신 실천합시다

대한불교화엄종 총무원장 화응 스님



영원한 대자유와 대행복의 길을 선포하신 날, 따뜻한 봄날에 룸비니의 소식이 전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천하의 창생(蒼生)들이 때와 티끌을 씻는 날이며, 우주만물도 생멸의 도리를 알아 저마다 자유와 기쁨의 소통을 갖는 날입니다. 인류의 삶을 조화롭고 화평하게 만드는 화엄세계는 함께 하는 동사의 정신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사면팔방이 원래 막히지 않았다는 경계를 바로 깨우쳐주는 화엄의 가르침으로 인류의 화합과 세계평화를 이룩합시다.

날마다 부처님오신날

한국불교여래종 총무원장 명안 스님



자비보살행을 실천하고 생사고해를 벗어나는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발원을 세우는 것이 부처님오신날을 맞은 불자들의 마음가짐입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다짐이 사라진다면 다시 중생의 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보살행으로 주변을 밝히는 정진을 이어간다면 부처님오신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찬탄하며 우리가 부처로 태어나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사물 직시 혜안 이룹시다

대한불교금강종 종정 무학 송천 스님



指環即離 不作方便
離幻即覺 亦無漸次

인류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자비로써 더욱 맑고 밝게 비추시고, 용서와 화합으로 행복을 추구하라고 이르십니다. 친애하는 불자 여러분, 우리는 허상을 진실로 착각하지 말고 사물을 직시하는 혜안(慧眼)을 이뤄야 합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경하드리며, 최고의 행복인 성불(成佛)을 이룹시다.

동체대비 정신 발휘를

수미산문조동총림 종정 정림 스님



탐욕과 무명의 허망함을 아는 것 부터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다 보면 바탕에 부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오신날 우리 각자가 각자의 마음을 돌아보면 화합과 상생으로 새로운 희망이 싹틀 것입니다. 다른 생명도 인간과 같이 존귀하고 소중함을 인식하여 동체대비의 정신을 발휘해 갑시다. 부처님오신날 자비광명이 각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합시다.

사바세계가 부처님 도량이니

대한호국불교 소림선종 종정 연화 스님



世尊坐道場 淸淨大光明 比如千日出 照耀大千界
慈悲沒有敵人 智慧不起煩惱

세존께서는 항시 도량에 계시며 청정한 대광명의 빛을 주시니 비교하면 천개의 태양과 같이 대천 세계를 밝혀주노니 그대들은 두려워 말고 자비 베풀어 살면 적이 없고 지혜 밝으면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세상은 모두가 부처님 도량이요 부처님의 지혜 자비의 광명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자비실천과 선업을 쌓아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불성 찾아 부처 이루세

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청운 스님



天上天下 唯我獨尊
無量生死 於今盡矣
此生濟度一切人天

이 불성이야 말로 하늘 위 하늘 아래 홀로 높고 가장 존귀한 것임을 천명하는 것이며 불성을 찾아서 부처를 이룰 때 그 존재는 가장 높고 위대한 개인이 됨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 지혜를 알립시다

대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성보 스님



중생을 요익(饒益)케 하고 구제하는 부처님 가르침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하나되는 세상이야 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부처님 세상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 진리와 자비와 지혜로 청정함을 만들어 가야합니다.

욕망은 파멸을 낳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중도로 상생의 미덕을 만듭니다. 불교 안의 지혜를 더욱 널리 알려갑시다.

마음으로 지혜등불 켜자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스님



모든 정성을 다해 켠 등이 밝은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설화처럼 우리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진솔한 마음으로 불성을 일깨우고 중생의 어둠을 사르는 지혜의 등불을 켭시다.

이웃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요, 남의 잘못이 나의 잘못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을 내 몸 같이 여긴다면 저절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 부처를 공경합시다

여래불교조계종 종정 성관 스님



교도소에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술집에 있는 부처님들, 공장에서 굵은 땀을 흘리는 부처님들, 그리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부처님들, 모든 부처님들이 태어난 부처님오신날입니다. 일체가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일체이니 우리 사회 곳곳의 수많은 이들이 부처님 오신 뜻을 깨닫고 함께 행복하기 위해 정진합시다. 정진하는 가운데 저절로 내 마음의 무명이 걷어지고 행복이 찾아오니 공경하고 공경합시다.

꽃을 보고 마음 깨치도다

대한불교삼보종 종정대행 법장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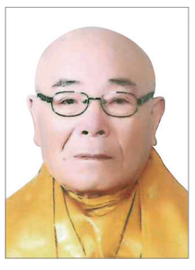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날 나라는 안정되고 온국민은 평화롭게 사십시요.

청산은 티끌 밖에 허상이니
밝은달은 마음 가운데 숨었도다.
산하는 천안 속에 있고 세계는 그대로가 진리니라.
새소리 듣고 마음 밝히니 꽃을 보고 몸과 마음 깨치도다.

양보하며 살아갑시다

대한불교금강조계종 종정 수암 스님



이 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 존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가진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 하여 서로 화합하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돕고 살아갑시다.

관용과 화합의 세상 만들자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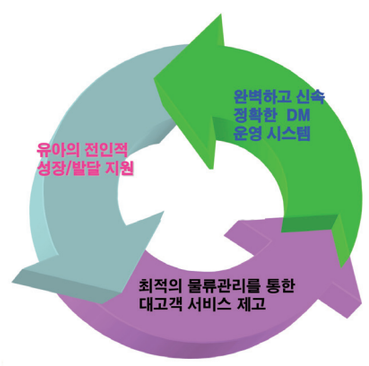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미망을 깨우쳐주고자 육신을 나투시어 미래의 영원한 생명체인 법신의 참모습을 보이셨고, 생사 해탈을 통해 대자유인, 참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밝은 연등을 밝혀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며 탐욕에서 배품으로, 다툼에서 관용과 화합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등불을 밝혀 부처님의 삶을 배우고 가르침에 따라 삼독심에서 벗어나 고통과 소외받는 모든 이웃에게 자비 손길을 나눕시다.



불기2568(2024)년 부처님오신날 마음의 평화 행복한 세상

국내 최초 DM 서비스 제공, 44년 경험의 전문 기업 덕성기획(주)



미래를 여는 덕성기획(주)
경기도 부천시 범안로 219번길 87
TEL : (02)2615-0183(대) FAX : (02)2689-3139
www.duksungdm.co.kr
▶ DM사업본부 ▶ 물류사업본부 ▶ 유아교육사업본부(노벨과 개미)

유아교육사업본부 덕성기획(주) 노벨과 개미+

미래를 여는 (주)덕성C&B
TEL : (02)2615-3296(대)
FAX : (02)666-3139
직배사업부 : 서울 수도권 및 지방 대도시 직배서비스 운영